

권두언

## 충청남도 3농혁신, 이제는 실천이다

허승욱 | 충남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 위원장, 단국대 교수



**얼마** 전 학생들에게 시간 참 빠르다면서 '옛날얘기 하나 해줄까?' 하니, 해달란다. 초등 학교 시절 전교생이 깡통하나 들고 산에 올라 송충이 잡던 얘기였다. 깡통을 채우지 못하면, 꽤나 심란한 하루가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생들은 정말이냐고 호들갑이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요새 송충이 본지 오래다.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흔하던 동네 어귀의 쌀집들도 없어졌고, 쌀집만큼이나 많던 사 진현상소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불현듯 농업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번져나간다. 한미 FTA 발효를 목 전에 두고 있는 요즘의 심경이다. 그 많던 제비들이 도시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농업도 천천히 그렇게 되는 것을 아날까하는 걱정이 찌뿌둥한 날씨만큼이나 무겁게 나를 누른다.

이쯤 되면 멀지 않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피해는 어느 정도일 지, 어떤 분야가 어려워질 것인지 등등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 우리 농산물과 외국산 농 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기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 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양담배의 경우다. 양담배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던 때를 기억하는 분 들이 많을게다. 양담배 수입개방에 대한 날선 찬반이 있었고, 시장점유율에 대한 많은 분석도 있었다. 수많은 잎담배 생산자를 업은 전매청(KT&G)과 다국적 담배회사들과의 한 판 전쟁이었 다. 그때만 하더라도 양담배 피우면 마치 매국노 같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양담배는 고작 20 여년 만에 소비자들 주머니로 성큼 들어 왔고, 개방 당시에만 해도 10%대에 머물거라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덧 40%대를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높아진 양담배 시장점유율에만 있는 것이 아 니다. KT&G는 담배 경쟁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2001년에 71%였던 국산잎담배 사용비율을



26%까지 낮추고, 외국산 잎담배 사용비율을 74%로 점진적으로 늘려갔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산잎담배가 외국산에 비해 3배 비싸기 때문이란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다.

한-EU, 한미 FTA,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호주 FTA 등 개방의 파고에 직면한 우리 농업도 이와 어찌 다를까. 물론 FTA 초기에는 당분간 고율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름 경쟁한다 하겠지만, 물량으로 들어대는데 당할 도리가 없을게다. 그나마 허용된 범위에서 제야무리 관세를 붙여본들 막대한 농업보조금과 낮은 생산비를 앞세운 가격경쟁에 당할 도리는 없다. 그뿐인가. 수출국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고품질은 기본이며, 엄청난 광고를 통한 공세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관세장벽이 하나 둘 모두 무너질 십수년 이후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엄동설한의 한겨울로 내몰리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지난 반만년 한반도를 살려왔던 우리 농업을 포기할 수야 있겠는가? 농업을 포기한 나라, 식량주권이 없는 나라는 결국 식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왜 그렇게 농어업에 천문학적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국의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려 노력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야 한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농업규모가 큰 지역이다. 농어업인들도 충남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민선5기 충남도의 대표적인 전라과제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뜻하는 3농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도지사는 앞으로 3농혁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로 충남 도정을 평가받는다고 했다. 도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농업·농촌 연구에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올해 1월에는 생산자, 소비자, 학계, 도의원이 모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3월부터는 농어민, 충남의 공무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충남발전연구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농어업·농어촌혁신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이를 8월 30일에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무렵부터 충남의 16개 시군의 생산자, 기술센터 공무원, 읍면동장, 농협 조합장 등 충남 농어업 일꾼들과 공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1년 반만에야 비로서 충남 3농혁신의 틀을 마련한 셈이다.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켜나가는 것이 3농혁신이며, 도시의 소비자들과 공생하자는 것이 3농혁신이다.

이제 뜻을 모았으니 남은 것은 참여와 실천이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소비자들과의 강한 신뢰만이 무차별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대안은 신뢰와 품질밖에 없다.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두통약 한 알 처방한 심정이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과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3농이 우리 미래의 명운을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